

# 썸필름앤디지털에는

# 특별한 썸싱이 있다

취재&amp;글\_한아름 촬영\_황새봄



한국방송촬영인협회에서 주최하는 그리메상 시상식은 1년을 마무리하며 각 방송사에서 제작한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에서 뛰어난 영상미와 실험적인 영상을 추구한 촬영인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축제의 자리다. 그런데 2019년 그리메상 시상식에서 이색적인 수상자가 눈에 띄었다. '한국방송촬영인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감사패를 받아든 썸필름앤디지털의 기은정 대표였다. 단상 위에 올라가 감사패를 받는 그에게 많은 촬영인이 일어나 박수와 함께 축하의 꽃다발을 건넸다. 썸필름앤디지털이 대체 어떤 곳이기에 많은 촬영인이 한마음으로 축하했을까? 썸필름앤디지털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보기로 했다.



## SOME Film & Digital

### 1959년생 안 렌탈

(주)SOME Film & Digital(이하 썸필름앤디지털)의 시작은 1959년 안창복 원로 촬영감독이 설립한 '안 렌탈'이다. 사실 시작은 이름처럼 거창하지 않았다. 더구나 렌탈 사업의 개념도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다. 당시 영화 촬영감독이었던 안창복 촬영감독이 카메라를 구매했고, 그의 아내가 어린 아들(현 썸필름앤디지털의 공동대표 안성균 촬영감독)을 업고 충무로에 나가 촬영감독들에게 카메라를 빌려주던 것이 썸필름앤디지털의 시작이었다.

제대로 렌탈 사업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는 국가적인 큰 행사를 치르면서였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안성균 촬영감독이 회사를 맡으면서 상호를 'SOME Pictures(이하 썸 픽처스)'로 변경했다. 상호를 변경한 후부터 안성균 촬영감독은 공격적으로 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CF 촬영감독 출신(선우광고)인 그는 촬영을 위해 외국을 돌아다니며 선진 장비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그만큼 한국의 영상 장비 실태가 얼마나 열악한지도 알 수 있었다. 그는 해외 팀이 한국에 와서 은근히 그런 실태를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분했고 국내 업체가 일본에서 쓰던 중고 장비를 들여와 파는 행태도 싫었다. 그 자신이 카메라를 다루는 촬영감독인 만큼 좋은 장비가 더 좋은 화질을 선사하고, 그것이 영상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가정이 생긴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집과 차를 팔





아 카메라를 한 대 들여왔다. 그 카메라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세 대가 되면서 렌탈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다.

외국에서 경험해본 렌탈 문화를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적용하면 좋겠다는 데 생각이 미쳤고, 그렇게 시작한 렌탈 사업 초기에는 주로 영화 촬영팀에게 장비를 대여했다. 2000년~2011년 사이에 천 만 영화 <7번방의 선물>을 비롯해 <한반도>, <장화홍련>, <태극기 휘날리며>, <조폭 마누라>, <가문의 영광>, <엽기적인 그녀>, <시월애> 등 90여 편의 영화가 썸필름엔지니어의 장비로 촬영되었다. 그러는 사이 영상 시장에는 디지털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성균 촬영감독은 디지털 시장을 외면했다. 필름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디지털 시대 초기에 도입되기 시작한 카메라가 RED였는데, 아무래도 초창기라 시행착오가 잦았다. 발열 때문에 촬영 중에 카메라가 꺼지기도 했고 시스템이 주변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것은 카메라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디지털 장비는 비싼 필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고, 시장의 트렌드는 디지털 쪽으로 기울어갔다. 그

러한 트렌드를 조금 늦게 파악한 안성균 촬영감독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던 차에 필름 카메라 최고의 제조사인 ARRI에서도 ALEXA라는 디지털 카메라가 출시되었다. 미국 NAB에서 아무 것도 보지 않고 ALEXA 두 대를 가계약했다. 하지만 어렵게 들여온 ALEXA 카메라는 한동안 창고에 모셔진 채로 있어야 했다. 먼저 도입된 RED를 찾는 사람은 많았지만 ALEXA는 아직은 생소한 카메라였던 것이다. 안 되겠다 싶었던 안성균 촬영감독은 자신이 직접 카메라를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추상미 감독이 연출한 단편영화 <분장실>을 ALEXA로 촬영했고, 후반 작업 업체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SBS 드라마 촬영팀에서 연락이 왔다.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ALEXA로 촬영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바로 <시티헌터>라는 작품이었다. 이후 SBS <뿌리 깊은 나무>, <주군의 태양>, KBS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등 많은 드라마가 썸필름엔지니어의 ALEXA로 촬영되었다.



##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요?

2011년 안성균 촬영감독은 디지털 장비 렌탈 회사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의 아내인 기은정 대표와 함께 (주)SOME Film & Digital을 설립했다. 그러면서 SONY F65, SONY PMW-F55, ARRI ALEXA XT 등의 카메라는 물론 Master Prime, ARRI Alura Zoom 등의 렌즈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SONY PMW-F55는 썸필름엔지니어를 통해 SBS 드라마 <상속자들>에 최초로 사용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썸필름엔지니어의 ARRI ALEXA mini는 tvN 드라마 <풍선껌>과 <도깨비> 등의 촬영에 사용되었고, ALEXA LF는 넷플릭스 <스위트홈> 촬영에 사용되었다. 썸필름엔지니어는 새로운 카메라가 나올 때마다 앞장서서 장비를 도입하고 먼저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촬영 실정에 맞는지, 혹여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대표가 촬영감독이라는 사실은 썸필름엔지니어의 최대 강점

이다. 직접 장비를 테스트하고 장비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과 장비 사용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기은정 대표의 경영 방침도 지금의 썸필름엔지니어를 만드는 데 큰 몫을 했다. CF 조감독 출신인 그는 누구보다도 촬영 스태프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줄 알았다. 촬영 중에 장비 문제로 촬영 시간이 하염없이 늘어지면 수많은 스태프가 애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사전에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24시간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그런 현장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장비를 대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비 대여 전과 대여 중, 그리고 대여 후까지 고려한 썸필름엔지니어의 마인드가 2019년 그리메 시상식에서 수많은 촬영인의 박수를 이끌어냈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안녕하세요. 썸필름엔디지털입니다



썸필름엔디지털은 CEO인 기은정 대표와 공동대표로서 장비 수입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안성균 촬영감독을 필두로 재무와 회계를 담당하는 강경돈 본부장, 장비 스케줄을 담당하는 이대환 실장과 장비 관리 및 점검을 담당하는 박용찬 차장을 비롯해 신영광 대리, 현욱 대리, 배준영 대리, 오현호 사원, 안선우 사원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인원이 주간과 야간 3교대로 24시간 썸필름엔디지털의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고 있다. 이 인원을 꾸리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특히 야간 팀이 정착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지만 직원들의 컨디션이 썸필름엔디지털의 컨디션

이라 여기는 기은정 대표의 생각을 바탕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지금은 10명의 직원이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부족함이나 넘침 없이 잘 맞춰진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썸필름엔디지털을 방문하면 입구에 구성원의 사진이 이름과 함께 게시되어 있는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직원들 얼굴을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친근하게 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직원들 역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밝힘으로써 보다 책임감을 갖고 친절하게 고객을 대하게 될 것이다.



##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썸필름엔디지털의 운영 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는 기은정 대표와 안성균 촬영감독 모두가 필요로 여긴 부분이었다. 드라마든 영화든 촬영은 낮 시간에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촬영 장비의 문제 역시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밤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촬영 현장은 시간이 곧 돈이다. 장비 고장으로 촬영이 중단되면 수많은 스태프가 작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만큼의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 썸필름엔디지털은 장비 때문에 촬영이 멈추는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멈추더라도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고 있다.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24시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정말 급한 경우에는 기은정 대표와 안성균 촬영감독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기도 한다. 어떤 드라마에서 두 대의 카메라를 대여했는데 그중 한 대가 이상하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다. 당시 촬영지가 완도에서도 배를 타고 한 시간 반

을 더 들어가야 하는 섬이었는데, 여분의 카메라를 들고 밤 12시에 서울에서 완도로 출발했다. 아침 6시에 완도에 도착해 8시경에 첫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서 카메라만 전달하고는 다시 배를 타고 나와서 서울로 돌아왔다. 또, 밤샘 촬영과 쪽대본이 난무하던 시절 밤 12시가 넘어서 대본이 바뀌는 바람에 갑자기 C캠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도 늦은 시간이었지만 촬영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세팅해서 넘긴 덕분에 촬영팀은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 해외 촬영지로 출동한 적도 있다. 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갑자기 카메라가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촬영지가 뉴질랜드였다. 부랴부랴 비행기 표를 끊고 뉴질랜드까지 가서 카메라만 전달해주고는 공항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에스프레소만 한 잔 마시고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두 대표가 솔선수범하여 촬영 현장을 챙기는 모습은 썸필름엔디지털을 이용하는 많은 촬영팀이 엄지를 치켜세우는 이유 중 하나다. “역시 ‘썸’에 맡기면 안 되는 게 없다”는 평가는 사실 그동안 이런 노력으로 쌓아온 신뢰와 같은 것이다. 대표가 이렇게 열심히니 직원들도 고객을 대할 때 더욱 진심으로 대하게 되는 법이다.

## 백업 카메라는 여러분의 목숨 같은 것이다

썸필름엔디지털의 운영 방침 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백업 카메라 운영’이다. 어떤 작품에 장비를 대여한다고 했을 때 동일한 세팅의 장비를 여분으로 더 마련해두는 것이다. 촬영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고장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지미집에서 카메라가 떨어져서 파손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악천후로 인해 장비가 손상될 수도 있다. 점검에 점검을 거처서 대여한 장비지만 뚜렷한 원인 없이 작동이 원만하지 않

을 수도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하는 것이 백업 카메라다. 고장 난 장비를 회수해서 수리하는 것은 나중 일이다. 지금 당장 현장에 대체 투입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으면 촬영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장비를 대여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입장에서 백업 카메라를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해일 수 있다. 더 많은 장비를 더 많은 촬영에 대여한다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모르



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현장에 대한 대응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씬필름엔디지털은 그보다는 믿고 찾아와 준 사람들이 더욱 편하게, 안심하고 촬영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 장비집의 기본은 장비다

션필름엔디지털은 영화,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 등 높은 퀄리티를 요구하는 영상 촬영이 가능한 하이엔드급 장비를 취급한다. 그리고 촬영 장비를 대여하는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장비다. 앞서 언급한 24시간 운영과 백업 카메라 운영도 장비가 변변치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를 겪으면서 안성균 촬영감독은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다짐했었다. ARRI ALEXA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해 SBS의 〈시티헌터〉에서 선보인 이후, 많은 드라마가 ALEXA로 촬영되었고, 이후 SONY F65, ARRI ALEXA ST 등의 카메라를 앞장서서 도입했다. 이후 드라마는 물론 영화 촬영에서도 큰 인기를 끈 ALEXA mini, 2019년 하반기부터 부상하기 시작한 라지포맷<sup>Full Frame</sup> 카메라인 ALEXA LF, mini LF 등 역시 발 빠르게 도입하고 선제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시장에 내놓았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카메라 장비의 변화는 너무도 빨라졌다. 휴대폰만 해도 2년에 한 번은 새것을 사는 일이 흔한 시대이고, TV는 4K 시대가 도래하기 무섭게 8K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잠깐만 한눈을 팔고 트렌드를 놓치면 변화에 뒤처지기 쉽다. 씬필름엔디지털은 최신 장비에 대한 정보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카메라의 제조사나 대리점에서의 공식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서의 정보도 눈여겨본다. 그러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 1차적으로는 사양표 등을 참고해 그 제품이 국내 실정에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데모 장비 요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요청해서 미리 테스트를 진행하고 괜찮다고 판단된 제품은 현장까지 내보내서 테스트를 완료한다. 그렇게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을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 등의 단기 프로젝

트를 선택했다. 백업 카메라는 단순히 백업의 의미라기보다 씬필름엔디지털에 대한 신뢰를 보증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트에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는 보다 심도 깊은 테스트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기 힘든 저예산 영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상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씬필름엔디지털의 의지가 반영된 일이다.

션필름엔디지털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렌즈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렌즈가 영상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 렌탈을 설립한 안창복 촬영감독이 아주 오래 전부터 누누이 강조해온 부분이기도 하다. ARRI Signature Prime, Master Prime, Ultra Prime, ARRI Alura Zoom, Cooke S4, Optimo Zoom, Zeiss Variable Prime 렌즈는 물론, ARRI Master Anamorphic, LEITZ Summilux-C Lens 등의 렌즈 또한 갖추고 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일본의 나크<sup>Nac</sup>라는 대표적인 ARRI 렌탈 업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Ultra Prime 렌즈를 개조한 Sakura Prime이라는 렌즈를 들여왔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안성균 촬영감독이 직접 일본을 방문해 현지 렌탈 업체 관리자들과 함께 협의해나가며 Sakura Prime 렌즈를 도입하기 위해 힘썼다. 이 Sakura Prime은 높은 선명도를 유지하면서 플레어를 부드럽게 피뜨리는 특징을 가졌는데 선분홍빛 색감이 강해서 회상 장면이나 화사한 느낌이 필요한 장면 등에 사용되어 호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 딱 4세트밖에 없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씬필름엔디지털만 보유하고 있는 렌즈다.

카메라와 렌즈는 렌탈 업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장비다. 씬필름엔디지털은 그 외에도 촬영 현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테라텍의 무선 송



Sakura Prime은 전 세계에 4세트밖에 없는 렌즈이며, 그중 2세트를 씬필름엔디지털이 보유하고 있다.

수신기 같은 제품이 대표적인 예이다. 1k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도 촬영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제품으로 영화 〈봉오동 전투〉촬영 시 사용한 일이 있는데, 말을 타고 산을 달리는 등 부상과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장면에서 안전하게 촬영을 마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씬필름엔디지털은 이러한 장비 도입에도 매우 적극적이며,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는 거리를 실측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철저하고 또 철저하게 검증을 거친다.



Sakura Prime 렌즈를 테스트 중인 안성균 촬영감독.



안창복 원로 촬영감독이 특별히 주문 제작한 카메라 보관함으로, 씬필름엔디지털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 보고 또 보고

보유한 장비의 컨디션을 항상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또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모든 카메라와 렌즈, 주변 기기는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썸필름엔지니어링의 직원들은 수시로 장비를 점검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또한, 대여했던 제품이 다시 돌아오면 모든 기능을 하나하나 실행하며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카메라가 가진 기능이 100가지라면 100개의 기능을 모두 실행해보는 것이다. 이런 작업 덕분에 썸필름엔지니어링의 직원들은 장비의 기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썸필름엔지니어링은 주기적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정비를 거쳐 문제점을 파악하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의 A/S 담당자와도 꾸준히 연락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친절 또 친절

장비집의 기본이 장비라면, 친절은 화룡점정이다. 그것은 특히 기은정 대표의 경영 방침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다 보니 이왕이면 웃는 얼굴이 좋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구나 CF 조감독 출신으로 촬영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야 했던 그는 누구보다 촬영이라는 일을 잘 이해하는 사람 중 한 명일 것이다. 때문에 썸필름엔지니어링을 찾아오는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헤아릴 줄 안다. 밤 늦게 연락해서 장비가 갑자기 안 된다고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에 발벗고 나서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기도 하는 것은 밤 늦게라도 전화를 해야 하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장비, 마음을 다하는 서비스와 친절. 썸필름엔지니어링이 많은 촬영인에게 사랑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고, 2021년 상반기가 지나가려고 하는 지금도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다. 영상 업계 역시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수많은 영화가 극장 개봉을 취소하거나 연기했고 해외 촬영은커녕 국내 촬영도 여의치가 않다. 드라마 역시 촬영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촬영이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때문에 썸필름엔지니어링도 장비 스케줄이 예상치 못하게 꼬이는 등의 상황을 피할 수 없었는데, 중단되었던 촬영이 한꺼번에 재개되면서 한번에 많은 팀을 응대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제품을 공급하는 해외 공장 운영이 중단되어 부품 수급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고장 난 장비를 수리하고 싶어도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달라고 촬영팀에게 거듭 당부하는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드라마 콘텐츠의 수요가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증가한 것이다. 특히 넷플릭스, 웨이브를 비롯해 카카오토티, 애플TV, 디즈니, 티빙, 쿠팡 플레이 등 다양한 OTT 서비스가 자유로운 외출이 불가능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인기를 얻었고, 그와 더



불어 다양한 드라마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또 다른 변화는 영화와 드라마 스태프 사이의 벽이 거의 허물어졌다는 것이다. 영화 촬영에 사용되던 장비가 드라마에 사용되기 시작한 지는 한참되었지만 인력 이동에는 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영화 업계가 타격을 입으면서 많은 인력들이 드라마 촬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렌탈 업계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주로 영화, 광고, 뮤직비디오 촬영에 장비를 투입했던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적게 받은 드라마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그만큼 업계 내에서의 경쟁이 심해졌다.



##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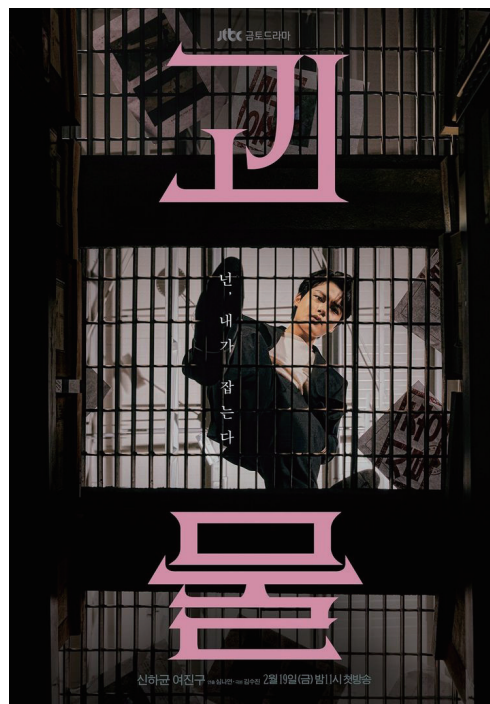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코로나19 이후 드라마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고 그 때문에 업체 사이의 경쟁도 심해졌다. 사실 업체들마다 취급하는 카메라 모델은 비슷할 것이다. 결국 같은 모델의 카메라를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썸'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이다.

썸필름앤디지털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촬영팀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촬영팀이 '썸'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썸'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썸'의 목표는 다작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 팀

이라도 질적으로 우수하도록 관리하는 것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직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눈다.

결국 썸필름앤디지털이 내린 결론은 지금처럼 한 팀, 한 팀 꼼꼼하게 신경 쓰며 마지막 촬영까지 장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포트하면서 함께했던 촬영팀과 지속 가능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도 빼놓을 수 없다. 썸필름앤디지털을 이용하는 촬영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최고의 렌탈 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카메라와 렌즈를 제시해 촬영팀이 보다 자유롭게 장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썸필름앤디지털의 목표이다.



## 썸필름앤디지털의 사람들

썸필름앤디지털을 이야기할 때 안창복 원로 촬영감독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안 렌탈의 설립자이자 영화 촬영감독이며, 썸필름앤디지털의 공동 대표인 안성균 촬영감독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20여 편이 넘는 영화를 촬영했다. 대표작으로 <미워도 다시 한 번> 시리즈와 <열아홉 순정> 등이 있으며 1973년에는 <비련의 병어리 삼룡>이라는 작품으로 제12회 대중상 시상식에서 촬영상을 수상했다. 2004년에는 <도마 안중근>이라는 작품을 촬영했으며 2010년에는 <갯가락>이라는 작품의 촬영 고문으로 활약했다. 2020년 제40회 황금촬영상 시상식에서 촬영감독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영화의 역사를 함께한 산증인이며, 영상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일등공신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안성균 촬영감독은 CF 촬영감독 출신으로, 안 렌탈에서 썸 픽처스로 상호를 변경하고 지금의 썸필름앤디지털이 있기 위한 기틀을 다졌다. 영화 <두 번째 스물>, <Sunshine Family>



(좌)안창복 촬영감독 (우)안성균 촬영감독

등을 촬영했으며 2017년에는 제37회 황금촬영상에서 신인 촬영상을 수상했다. 기은정 대표가 썸필름앤디지털의 얼굴이라면 그는 썸필름앤디지털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다.

안창복 원로 촬영감독이 썸필름앤디지털의 시초인 안 렌탈을 세우고, 안성균 촬영감독이 썸 픽처스로 썸필름앤디지털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그 꽃을 활짝 피운 인물은 기은정 대표이다. 앞에서도 몇 차례 언급했듯이 그는 CF 조감독 출신이다. 서울예술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했지만 CF 쪽 일이 더 마음에 들어서 학생시절부터 광고 공모전에 참가하기도 하고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광고 프로덕션에 입사해서 일을 시작했다. 당







시는 업계에 여성 조감독이 매우 드문 시절이었다. 처음 1~2년은 매우 즐겁게 일했는데, 일에 대한 욕심과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본으로의 유학을 결심하게 했다. 일본에서 공부를 한 뒤 일본 굴지의 광고기획사인 도에이(東映) CM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다. 도에이 CM 입사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일본 영화학교에서 촬영 전공으로 공부 중이던 안성균 촬영감독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사랑과 일은 함께 오는 것인지, 그토록 바라던 도에이 CM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기은정 대표는 도에이 CM에 입사한 지 3개월만에 한국관광공사의 광고 온에어를 위해 촬영팀과 배우를 포함해 약 40여명을 이끌고 한국으로 촬영을 오게 되었다. 그 프로젝트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일에서도 승승장구했고, 안성균 촬영감독과도 잘 지내던 때였다. 그러던 중 안성균 촬영감독이 비자 문제로 귀국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둘의 인연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둘은 기은정 대표가 다시 촬영을 위해 한국을 찾았을 때 촬영장에서 운명처럼 다시 마주쳤다. 그 후 기은정 대표는 선배가 세운 광고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다시 한국의

로 돌아왔고, 우여곡절 끝에 안성균 촬영감독과 결혼했다.

결혼 후 얼마 안 가 아이가 생겼고, 기은정 대표는 오랜 경력 단절을 겪게 되었다. 육아에만 전념하는 동안에도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가슴 속에 있었다. 대학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이 영화제나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축하도 했지만 우울했던 적도 있었다. 우울함이 커졌을 때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다도를 배웠는데, 다도를 배우는 동안에는 시끄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었다. 지금도 썸필름엔디지털에는 그를 위한 다도 공간이 있는데, 다실 한쪽 벽에는 '고원'이라는 그의 다호(茶號)가 새겨져 있다. 그곳은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자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다.

작은딸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쯤 남편인 안성균 촬영감독이 다시 일해볼 것을 권했다. 썸필름엔디지털의 설립이 그 즈음이었다. 일에 대한 열정은 금세 다시 불타올랐다.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힘든 줄 모르고 뛰어다녔다. 기은정 대표는 그때의 기분을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고 회상한다. 조감독으로 일했던 경험은 그의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장에서

고생할 스태프들을 위해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을 챙기기도 하고 추울 때는 뜨끈한 어묵탕을 가져가기도 했다. 일하느라 지친 스태프들은 그런 그의 배려를 반겼다. 직원들을 챙기는 것도 그에게는 즐거움이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정비해주고, 잘한 만큼 보상하고 그렇게 한 해 한 해 함께 성장해가는 시간이 너무나 보람찼다.

기은정 대표는 돌이켜 보면 육아에 전념했던 그 시간도 소중한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한 순간에 함께해줄 수 있었던 것도 뿌듯하고 아이들이 잘 큰 모습을 보면 고맙기도

하다. 그리고 엄마가 다시 일터로 돌아갔을 때 아이들은 그런 엄마를 많이 응원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은 남편인 안성균 촬영감독이다. 실패의 자리를 맡겨준 그의 믿음과 또 그만큼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묵묵함이 항상 고맙다고 한다.

그는 행복하기 위해 일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다시 일하게 되었을 때의 그 충만한 보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일하는 게 불행하다 생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그의 목표이다.

라스베이거스 방송 기자제 전시회를 방문한 안성균·기은정 대표



## 그대는 나의 동반자

썸필름엔디지털의 홈페이지 CREDIT 카테고리에 가보면 그동안 썸필름엔디지털이 어떤 작품에 참여했는지를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작품마다 촬영감독의 이름을 명시해놓은 것이다. 그 작품을 촬영한 촬영감독이 누군지 기억하겠다는 의미이다. 썸필름엔디지털에게 있어 촬영감독은 단순히 고객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해 나가는, 동반자와 같은 존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썸필름엔디지털의 특별한 '썸씽'은 무엇일까?

오래된 역사, 좋은 장비, 촬영감독이 세운 회사라는 점 등도 특징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썸필름엔디지털이 특별한 것은, 촬영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배려하면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그 '마인드'일 것이다. 장비집의 기본은 장비이지만 그 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것이 썸필름엔디지털의 최대 강점이 아니었을까? 앞으로도 썸필름엔디지털이 촬영감독과 더 많은 작품에서 좋은 하모니를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KDPs